단번에

(히브리서 9:1-12)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예비하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답입니다.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에 올인하면 됩니다.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아닌 답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답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가장 큰 응답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답도 영이고, 우리도 영입니다.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있어도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미 내 안에서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갔는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양심적으로 느껴지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베네수엘라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마리오 전도사님이 함께 가지 못해서 현지에서 통역자를 구했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까지 우리와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시고, 근래에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는 자기 힘으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항상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 미겔 목사님 교회는 멀어서 가지 못했고, 나머지 두 분의 교회를 선교 기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한 분의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때 메시지를 부탁받아 갔는데, 거기는 마당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30-40명이 의자를 두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주일에 아이들이 150명이 모이는데, 그 동네에서는 큰 땅에 속하지만 동네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5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데, 그 모든 음식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교사 자격증으로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포럼도 받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600여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환경에 아이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모든 선교 현장에는 많은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기와 물이 끊기는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시대적인 복음을 주신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자는 반드시 작품 인생 살게 됩니다. 여기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죽은 사람 없이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 중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 하나 때문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 단번에

주님이 한 번에 끝내시고, 더 이상 더 할 게 없이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바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을 칭하는 것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고, 완성된 것입니다. 히 9:24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물의 어딘가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 8장 말씀처럼 언약의 중보자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 역할도 그림자 성소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는 창조주, 그리스도, 완성한 곳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형인 피조물인 사람 제사장은 만들어진 성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 9:25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대제사장 사람이 다른 것의 피(염소, 송아지)로 다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년 해야 하는 게 주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 9:26에 그리하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반복적으로 늘 해야 하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이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창조주 제사장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사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해야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

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물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모형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 9:11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창조물이 아닌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자기 자신을 설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더 온전한 장막이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 몸을 제물로 드리고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30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멀리 있다면 아직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사실이 들어와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럼 영원한 답이 되고, 무슨 문제나 사건 상관없이 답이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답이 되기 때문에. 낙심, 불평, 불만, 불안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았고, 기다림에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정복하고, 끝내어 작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출발입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들어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믿음을 유지하려고 들어온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계속 소리쳤습니다. 언약과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더 할 게 있다면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과 성전은 계속 반복해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은 피조물의 운명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리고, 마음에 답이 되는 시간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이 내게 답이 됩니다. 이 답을 가지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말씀 녹취본을 보시고 은혜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대지는 제가 첫 번째는 많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요약하여 잡을 것은 무엇인지 적어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